

## 허영에서 낭만으로의 망명

로저 미첼의 <노팅힐>과 헨리 제임스

김경욱 |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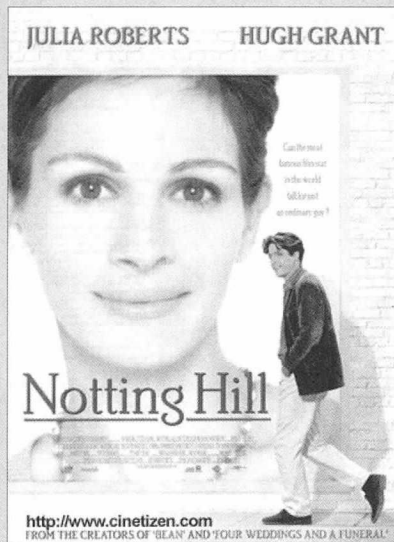
영화 <노팅힐>은 대부분의 로맨틱 코미디가 그렇듯이 현실에서는 좀처럼 가능해 보이지 않는 사랑에 관한 환상을 자극하고 충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당의정 속에 결코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없는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 영국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숨쉬는 노팅힐

<귀여운 여인>에서 리무진을 타고 온 백만장자의 프로포즈를 받는 신데렐라 역으로 로맨틱 코미디에 입문한 줄리아 로버츠가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가 돼 돌아왔다. <귀여운 여인>에서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었던 이 배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엄청난 부를 손에 쥔 할리우드의 스타가 돼 런던의 <노팅힐>에 나타난 것이다. 영국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곳에서 그녀는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노팅힐의 한구석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여행서적을 파는 한 남자. 언제나 그렇듯이,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듯이 그들은 한눈에 서로에게 반하게 된다.

왜 하필 노팅힐인가? 노팅힐은 런던을 방문한 관광객이 한번쯤 들르는 곳이다. 온갖 물건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베흐시장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비버리힐즈와 노팅힐의 차이만큼 두 젊은 남녀는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어울리지 않음이야말로 로맨틱 코미디의 출발점이다. 환상은 실현불가능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나무기 때문이다.

비버리힐즈와 노팅힐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의 극복. 영화 <노팅힐>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비버리힐즈와 할리우드가 미국식 자본주의의 상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 '안나'는 번두리의 작은 서점 주인 '윌리엄'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영화 <노팅힐>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사랑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로맨틱 코미디의 전형을 보여준다.

징이라면 런던의 노팅힐은 영국의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곳이다. 두 공간 사이에는 대서양이라는 물리적 장애물보다도 더 깊은 차이가 놓여 있다. 안나의 공간인 비버리힐즈와 할리우드가 스캔들, 폭로, 그리고 배신으로 점철된 곳이라면 윌리엄의 공간인 노팅힐은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려가 충만한 곳이다.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 안나가 무명시절에 찍은 누드 사진이 폭로돼 곤욕을 치를 때 도망치듯 숨어든 곳이 바로 노팅힐에 있는 윌리엄의 집이라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 '안나'와 '윌리엄'을 이어준 헨리 제임스

스캔들의 공간 비버리힐즈와 사랑의 공간 노팅힐, 너무나 먼 두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체는 바로 19세기 말의 소설가 헨리 제임스다. 지구를

구하는 SF나 액션에만 출연하는 안나에게 노팅힐의 평범한 청년 윌리엄은 헨리 제임스의 영화에는 출연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는 헨리 제임스 소설의 애독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안나는 난색을 표시한다. 문학 전공자들조차도 즐겨 읽지 않는 헨리 제임스의 작품을 영화화할 만큼 용기 있는 제작자가 할리우드에는 없기 때문이다.

스캔들의 소란을 피해 윌리엄의 집에 도피한 안나는 그러나 그 작은 집의 파란대문 앞에 벌떼처럼 모여든 기자들을 보고 기겁을 한다. 그들의 사랑은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중대한 시련을 맞게 된다. 스캔들을 피하려다 또 다른 스캔들에 말려들었다고 생각한 안나는 윌리엄의 집을 떠나고 노팅힐은 다시 일상에 젖어든다. 몇 달이 지난 후 윌리엄은 우연히 안나가 영화 촬영을 위해 영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영화 촬영장에서 그는 안나가 촬영하고 있는 영화의 원작이 바로 헨리 제임스의 소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시점이론을 확립함으로써 현대소설의 기틀을 마련한 19세기 말의 소설가 헨리 제임스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 준 것이다. 영화 촬영이 끝난 날 안나는 윌리엄의 서점에 찾아와 프로포즈를 하지만 윌리엄은 그 자리에서 거절한다. 비버리힐즈와 노팅힐은 너무 먼 곳이라면서, 서로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나는 SF나 액션 영화에서 지구를 구하던 그 안나가 아니었다. 헨리 제임스의 소설처럼 섬세하고 윤리적이며 상처받은 인간의 영혼을 감싸안는 여성이 된 것이다. 어쩌면 안나는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출국 기자 회견장에서 윌리엄의 공개 프로포즈는 너무나 당연한 결말이며 로맨틱 코미디 특유의 지연작전일 뿐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나는 이 평범한 영국 청년의 프로포즈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마치 한세기 전, 작가 헨리 제임스가 자신의 조국인 미국을 떠나 영국에 귀화했던 것처럼.●